

■ 공연예술창작산실_2차제작지원(창작뮤지컬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공연예술창작산실_2차 제작지원(창작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 (1차 서류) 2024년 12월 02일 월요일 14:00~18:00
 - (2차 인터뷰)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09:30~19: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남, 김은영, 박정아, 신정화, 이재진

본 사업은 2021~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선정작을 대상으로 호평 받은 초연 작품이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발전하여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5건의 사업이 접수되었고 이 중 행정 결격 사유를 가진 3건을 제외한 2건을 대상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은 1차로 지원 신청서 및 작품에 대한 사전 검토 후 2차 대표자와 핵심 창작진으로 구성된 단체와의 인터뷰를 거쳐 치열한 논의 끝에 1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 기준은 작품성(30%), 2차 제작의 타당성(30%), 예산편성의 타당성(20%), 기대효과(20%)을 고려하였습니다.

심의 대상 중 첫 번째 작품은 초연의 탄탄한 서사와 음악에서 넘쳐나는 부분을 덜어내 작품의 밀도를 높이고 올해 초 성공적인 해외 진출 경험을 필두로 단체가 가진 인프라를 통한 아시아권을 넘어 영미권으로의 진출이 기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 역시 다양한 극장에서 더 많은 세대와 관객을 만나려는 시도와 이미 내년 해외 리딩 공연이 예정되어있는 등 작품의 확장성이 기대되었습니다.

이미 관객들과의 만남에 성공한 두 작품을 견주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에 심의 위원들은 1차 제작을 통해 관객과 관계자들로부터 수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공연발표 장소 및 참여진의 변화,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일정의 타당성, 관객 개발 등 제작 전반에 대한 계획이 명확한지 논의하였습니다. 2차 제작·개발 이후 콘텐츠의 국내외 배급 및 유통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부분 역시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의 우수 창작 레퍼토리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되신 단체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차 제작지원을 통해 작품이 단체의 안정적인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 역시 뛰어난 예술성과 독창성, 기획력을 갖춘 작품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선 매년 참신한 소재와 대중성,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정식 시행되는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을 통해 이러한 수작들이 단체의 대표 레퍼토리로 안착하고 국내외 많은 관객을 만나길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